

시장 대응 긴급 코멘트

2026.11.23 리서치센터 채널전략팀

Analyst 빈센트(김두언) kimdoun@hanafn.com

Analyst 임승미 seungmi_lim@hanafn.com

(현황) 코스피 고점 대비 49% 하락, 매도 사이드카 발동.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등 증시 안정 대책 논의

코스피 블랙먼데이 공포에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등 증시 안정 대책 논의

- **코스피 장중 -5.81% 하락한 4,586.80pt로 올해 32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.**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총 60회(매수 28회, 매도 32회) 발동. 10월 이후 코스피 7회 매도 사이드카, 2회 서킷브레이커 발동
- 코스피는 올해 고점(6/22일 종가, 9,114.55pt) 대비 49.7% 하락하며 변동성 확대. 정부 F4 긴급 회의에서 **증안펀드 가동 준비,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, 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, 자본시장 개혁 TF 추진** 등 증시 안정 대책 논의
- **1) 증안펀드 가동 준비.**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와 투매를 진정시키는 조치. 현재 약정 규모는 10조 7,600억원. 실제 자금이 투입된 사례는 1990년, 2003년, 2008년 3차례이며 2020년, 2022년, 2024년은 펀드 조성 및 가동 준비에 그침
- **2)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.** 11/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. 기업이 과도한 주가 하락을 자사주 매입으로 대응함으로써 주가 하락 국면에서 즉각적인 수급 방어와 저평가 신호 전달
- **3) 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.** 향후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. 무차입 공매도 등 법규를 위반하는 거래와 허위사실 유표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. 신용융자, 미수거래, 반대매매 동향 등도 점검
- **4) 자본시장 개혁 TF 추진.** 단기 변동성 대응을 넘어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장기 투자 기반 확대 목적.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, 생산적 금융 ISA 신설,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세제 및 제도 개편안 논의

(대응) 증안펀드 가동 준비, 정책 대응과 AI 불확실성 완화에 주목

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와 AI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낙폭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

- 금일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2거래일 연속 발동된 가운데, 정부는 주말 **F4 회의를 통해 증안펀드 가동 준비,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,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결정**. 증안펀드가 실제 가동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
- 과거 증안기금·펀드가 실제 집행된 사례는 1990년 증안기금결성, 2003년 카드채 사태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3차례. 가동 전 코스피는 고점 대비 각각 약 -21%, -37%, -54% 하락했으며, **현재**도 지난 20일 종가 기준 **고점 대비 약 -47% 하락**해 과거 증안펀드가 가동됐던 수준까지 조정받은 상황
- **과거 증안펀드 가동 이후 1년간 코스피는 평균 +19.6% 상승했으며, 가동 당일 최대 +5.8% 상승**. 2003년과 2008년에는 저점 부근에서 가동된 이후 각각 +43%, +33% 상승. 1990년에는 가동 1년 후에도 -17% 하락했으나, **고점 대비 -54% 하락한 수준에서 저점 형성**. 증안펀드 가동에 따른 잠재적 매수 주체의 등장과 정부의 대응 의지는 투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
-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와 불법 공매도 감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감시 대상도 불법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. 그럼에도 추가 컨틴전시 플랜 등 **정부가 다양한 시장 안정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**
- **젠슨 황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지지 입장과 엔비디아 이사회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**. CEO 복귀 시 스파이 연루 의혹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, 단기적으로 AI 생태계 내 투자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가능
- 다만 젠슨 황의 복귀가 관련 의혹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장기적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에 따른 한국 반도체의 수출 규제 부담과 순환금융 우려도 상존. 빌 애크먼 등 월가 인사들이 연준의 2%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긴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, 연준의 AI 관련 금융 위험 인식과 유동성 공급과 같은 향후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도 주목할 필요. **AI 생태계와 자금조달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현재의 과도한 낙폭을 회복하는 반등 계기**가 될 가능성
- **(결론) 증안펀드 가동 준비는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, 젠슨 황의 복귀 여부 및 연준의 AI 관련 금융 위험 인식은 AI 투자심리 회복의 변수가 될 전망. 단기 변동성에 따른 투매보다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정책과 AI 생태계의 불확실성 완화를 확인할 필요**

하나증권 리서치센터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